

# 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5월 3주 ~ 5월 4주)

## 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### ① 폴란드 경제 동향

#### ○ 폴, 2026년 1분기 GDP 전년 대비 3.4% 성장(5.14)

- 폴 통계청(GUS)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 동기 대비 3.4%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(3.6%)를 소폭 하회
- 성장률은 2025년 3분기 3.8% → 4분기 4.1% → 2026년 1분기 3.4%로 둔화되며, 최근 경기 확장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흐름 확인
- 다만, 1분기 성장률은 여전히 3%대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 및 투자 중심의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
-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.5%로 제시한 바 있으며, 현재 성장 흐름은 정부 전망과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

#### ○ 폴, 2026년 1분기 평균임금 전년 대비 6.7% 상승(5.20)

- 폴란드 통계청(GUS)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평균 월 총임금은 9,562.88즈워티(약 2,250유로)로 전년 동기 대비 6.7% 상승
- 평균임금은 전분기(2025년 4분기) 대비로도 4.0% 증가하며 견조한 임금 상승 흐름 지속
- 앞서 GUS는 2026년 3월 기업부문 평균임금도 전년 동월 대비 6.6% 상승했다고 발표하는 등 노동시장 내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
- 한편, 2026년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.2%로 집계되어,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며 실질임금 증가세 유지
- 2026년 최저임금은 연초 기준 4,806즈워티로 전년(4,666즈워티) 대비 3.0% 인상되었으며, 정부의 임금 인상 정책 기조도 지속되는 상황
- 최근의 임금 상승세가 민간 소비 확대와 내수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,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인건비 부담 및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

## 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- 우크라이나 경제 1분기 부진 이후 회복세, 4월 GDP 약 1% 성장(5.20)
  - 우 정부에 따르면 2026년 4월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 동기 대비 약 0.9~1.0% 증가하며 1분기 침체 이후 완만한 회복세 진입
  - 내수 소비, 광업·제조업(특히 방산 부문), 에너지 복구 관련 생산, 식품산업 등이 성장세를 견인했다고 설명
  - 정부는 2월 경기 둔화 이후 3월부터 회복 흐름이 시작됐으며, 일부 산업은 두 자릿수(10% 이상)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평가
  - 다만 우크라이나 경제연구소(IER)는 2026년 1분기 실질 GDP가 전년 대비 0.6% 감소했다고 분석했으며, 국가통계청 역시 약 0.5% 감소를 발표하는 등 연초 경기 부진은 지속된 것으로 평가
  - IMF는 2026년 우크라이나 GDP 성장률을 2.0%로 전망했으며, World Bank는 1.2% 성장 전망 제시
- 우 정부, '미래경제 전략' 통해 연평균 GDP 성장률 6% 목표(5.21)
  - 우 정부가 World Bank와 협력해 15년 장기 경제개발 전략인 '미래경제(Economy of the Future)' 전략 수립 추진
  - 스비리덴코 총리는 해당 전략의 핵심 목표로 연평균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6% 달성을 제시
  - 정부는 전략 중점 산업으로 ▲방산기술 ▲에너지 ▲농업 ▲교통·물류 ▲기계공업 ▲IT ▲핵심광물(Critical Minerals) 등을 선정
  - 별도 핵심 과제로 인구·노동력 회복 전략도 포함됐으며, 해외 체류 우크라이나인 약 310만 명의 귀환 촉진 추진
  -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현재 1.3% 수준에서 5%로 확대하고, GDP 대비 투자 비중도 전쟁 이전 16% 수준에서 연간 24~30%까지 확대 목표 제시
  -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전략이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경제 체질 개선과 EU 경제권 편입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

### 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#### ○ 폴, 2027년 Jaworzno에 전기차 산업 허브 착공 목표 추진(5.14)

- 폴 국유자산부 Balczun 장관은 Jaworzno 지역 전기차 산업 (electromobility) 허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2027년 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발표
- ElectroMobility Poland(EMP)와 대만 Foxconn 간 합작회사 설립 협상은 2026년 가을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며, 이후 공장 건설에 본격 착수할 계획
- Balczun 장관은 EMP와 전략 파트너 간 지분 및 운영 구조 협상을 연내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
- Jaworzno 공장 주변에는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단지 (Technology Park)도 함께 조성될 예정
- EMP와 폴란드 국가 환경보호 및 수자원 관리기금(NFOŚiGW)는 전기차 생산 및 개발 허브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, 총 45억 즈워티 규모 자금이 지원될 예정

#### ○ 폴 첫 원전 부지, 원자력청(PAA) 예비 부지평가 승인 획득(5.13)

- 폴 국영 원전기업 PEJ는 Lubiatowo-Kopalino 원전 부지에 대한 예비 부지평가 보고서(Preliminary Site Evaluation Report)에 대해 국가원자력청(PAA)으로부터 공식 적합 의견 획득
- 이번 승인으로 PEJ는 향후 원전 초기 공사 허가 신청에 필요한 핵심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으며, 프로젝트 일정 단축 및 선제적 공사 추진 기반 마련 기대
- 폴란드 정부는 2022년 미국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의 AP1000 노형을 채택해 3기 규모 원전 건설 계획 확정, EPC 및 설계는 Bechtel과 공동 추진 중
- 정부는 첫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을 2036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, 원전은 향후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안보 강화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전망

○ Tauron, 태양광·에너지저장장치 투자 위해 약 54백만 유로 조달(5.15)

- 폴 국영 에너지기업 Tauron는 재생에너지 자회사 Tauron Zielona Energia를 통해 약 54백만 유로 규모의 금융 지원 확보
- 자금은 폴란드 국가재건·복원계획(KPO) 재원을 기반으로 국책 개발은행 BGK가 제공
- 조달 자금은 태양광 발전소(PV) 3개소 및 에너지저장장치(ESS) 구축과 관련 인프라 개발에 전액 투입 예정
- 대출 금리는 폴란드 중앙은행 기준금리에서 2%p 인하된 변동금리 구조이며, 최저 금리는 연 1% 수준으로 설정
- 상환 기간은 2032~2046년 사이 반기 단위로 구성됨
- Tauron은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그룹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이며, 2026년 중 총 140MW 규모의 신규 태양광 발전단지 2개와 300MW 이상 규모의 ESS 프로젝트 개발 계획 발표

○ 폴 주요 건설사 3곳, 우크라 재건 협력체계 구축(5.18)

- 폴란드 주요 건설사 Budimex, Polimex Mostostal, AMW SINEVIA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공동 참여를 위한 협력협약 체결
- 협약은 우크라 전후(戰後)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젝트 공동 발굴·수행을 목표로 하며, 기술·인력·경험 공유를 통한 대형 프로젝트 대응 역량 강화 목적
- 재건 사업은 도로·철도·항만·에너지·물류 등 기반시설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, 자금은 EU 기금, 폴 국책은행 BGK 및 국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달 계획
- 폴 국유재산부는 이번 협력이 우크라 재건 과정에서 폴란드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연대라고 평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 표명

○ 폴 GDDKiA, Sądeczanka 도로 설계 입찰 개찰, 전 구간 예산 초과(5.18)

- 폴 도로공사 GDDKiA는 Brzesko-Nowy Sącz 구간 신설 국도 DK75(일명 '사치안카') 3개 구간의 상세 설계 입찰 개찰 완료

- 입찰 대상은 △Okocim - Uszew(3.6km) △Wytrzyszczka - Łososina Dolna(5.7km) △Tęgoborze - Nowy Sącz(9km) 등 3개 구간이며, 총 14개 기업 참여
- 각 구간별 제출 금액은 모두 GDDKiA 예산을 초과했으며, 총 예정 예산 약 2,337만 즈워티 대비 모든 응찰가가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
- Okocim - Uszew 구간에는 7개 업체가 참여해 약 300만~570만 즈워티 수준 제안, Wytrzyszczka - Łososina Dolna 구간은 650만~980만 즈워티, Tęgoborze - Nowy Sącz 구간은 1,250만~1,510만 즈워티 규모 입찰 진행
- GDDKiA는 현재 입찰안의 법률·기술 검토를 진행 중이며, 향후 추가 예산 확보 여부 및 계약 체결 여부 결정 예정
- 본 사업의 본격적인 설계·시공 입찰은 2027~2028년, 실제 공사는 2030~2031년 착공 목표
- 사치안카 도로는 브제스코와 노비송치를 연결하는 약 47km 구간의 왕복 2차선 도로로 계획돼 있으며, 크라쿠프 방면 연결성 개선 및 남부 말로폴스카(Małopolska) 지역 교통 혼잡 완화 목적

○ **Grupa Azoty, 2025년 순손실 약 10억 즈워티 기록(5.18)**

- 폴 최대 화학기업 Grupa Azoty 이사회는 2025 회계연도 순손실 약 1,103만 즈워티에 대한 보전 방안 권고안 의결
- 회사는 손실 전액을 자본잉여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, 이 중 약 431.25백만 즈워티는 액면가 초과 주식 발행으로 형성된 준비금 활용, 나머지 약 569.78백만 즈워티는 일반 자본준비금에서 충당하는 구조로 제안
- 해당 안건은 향후 감독이사회 검토 및 의견 제시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
- 이번 조치는 현금 유출 없이 재무구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상 대응으로, 배당보다는 재무건전성 관리에 우선순위를 둔 결정으로 평가
- Grupa Azoty는 최근 유럽 화학·비료 업계 전반의 에너지 가격 부담, 수요 둔화 및 공급과잉 영향으로 수익성 압박 지속
- 특히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과 유럽 산업경기 둔화가 비료·화학제품 생산

비용 및 판매 마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

- 전반적으로 이번 손실 보전 결정은 폴란드 및 유럽 화학업계의 구조적 수익성 악화 흐름을 반영하는 동시에, 향후 비용 절감·사업 재편 등 추가 재무 안정화 전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함

#### ○ Budimex, Pisz 우회도로 설계·시공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(5.18)

- GDDKiA는 국도 DK58·DK63 구간 약 7km 규모의 피슈(Pisz) 우회도로 설계·시공 입찰에서 Budimex의 약 161백만 즈워티 규모 제안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
- 이번 입찰에는 총 15개 건설사가 참여했으며, 해당 사업은 지역 교통 혼잡 완화 및 북동부 도로 연결성 개선을 위한 국가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됨

#### ○ Orlen, Kleczew 태양광 발전단지 250MW 규모 확장(5.19)

- Orlen 그룹이 폴란드 Kleczew 지역 태양광 발전단지 확장을 완료, 총 발전용량이 250MW에 도달
- 해당 시설은 Orlen 그룹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이자 중·동부 유럽 최대급 PV 단지 중 하나
- 프로젝트는 Orlen 계열사인 Energa Wytwarzanie 가 운영하는 'Kleczew Solar & Wind' 사업의 일환으로, 폐갈탄 광산 복원 부지에 조성
- 단지는 250MW 규모 태양광 설비와 함께 19.2MW 규모 풍력발전 설비를 포함, 태양광·풍력 통합 운영
- Orlen 측은 향후 계통연계 조건을 활용해 단지 총 발전용량을 약 334MW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설계를 반영했다고 설명
- 발전단지는 연간 최대 10만 가구에 공급 가능한 전력 생산 예정
- Orlen 그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설치용량을 12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 투자를 지속 추진 중

#### ○ PEJ·Westinghouse-Bechtel, 1호 원전 EPC 계약 연내 체결 추진(5.19)

- 폴 국영 원전 기업 PEJ와 미국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-Bechtel 컨소시엄이 폴 1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EPC 본계약 체결 시점을

## 2026년 말로 조정 추진

- PEJ는 당초 6월 말까지 EPC 협상 종료를 목표로 했으나, 양측의 기업 내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일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
- 양측은 현재 기존 EDA(Engineering Development Agreement) 사업 협약의 두 번째 추가 개정안인 'EDA++' 체결도 준비 중이며, 오는 6월 중 체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폴 첫 원전은 포모르스키에주 Choczewo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, 총 3기의 AP1000 원자로(총 설비용량 3,750MWe)로 구성
- 원전은 2036년 첫 번째 호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, Westinghouse는 원자로 기술 공급을, Bechtel은 엔지니어링·건설·사업관리 역할을 담당

### ○ Bechtel, Unihouse와 원전 건설 인력 숙소단지 계약 체결(5.19)

- Bechtel Polska와 폴 모듈러 건축기업 Unihouse가 원전 건설 현장 근로자용 숙소단지 조성을 위한 약 259백만 즈워티 규모 계약 체결
- 폴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지원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, 약 1,000명의 건설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·복지 시설 조성 목적
- 숙소단지는 총 12개 주거동과 5개 커뮤니티 및 복지시설로 구성되며, 2026년 2분기 착공 후 2029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
- Bechtel Polska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전체 고용 규모가 약 12,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, 이번 숙소단지는 전체 인력의 약 10%를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
- Unihouse는 폴란드 건설그룹 Unibep 산하 기업으로, 회사 측은 이번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폴란드 자본 기반 기업 참여 사례라는 점을 부각
- Bechtel은 현재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 17억 즈워티 규모의 16개 입찰 패키지를 발주, 폴 기업들의 공급망 참여 확대를 지속 추진 중

### ○ 스위스 Sika, 폴란드에 첫 대형 건설화학 공장 건설 추진(5.19)

- 스위스 건설화학 기업 Sika가 폴란드 Brześć Kujawski 인근 Machnacz에 약 1억 즈워티(약 350억 원) 규모의 생산공장 투자 진행

- 해당 공장은 Sika의 폴란드 내 첫 대규모 생산시설로, 콘크리트 혼화제 및 시멘트 기반 접착제 등 특수 건설화학 제품 생산 거점 역할 수행 예정
- 투자 부지는 포모제 특별경제구역(Pomeranian Special Economic Zone)에 위치하며, 고속도로 접근성, 트리시티 항만 인접성, 원자재 조달 용이성 등 물류 경쟁력을 고려해 선정
- 회사 측은 신규 공장이 향후 신공항 프로젝트 및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 관련 수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
- 공장 건설은 2026년 8월 완료 예정이며, 이후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 2027년 초 본격 양산 개시 목표

○ 폴 건설업계 부채 급증, 저가 수주·원가 상승에 유동성 위기 심화(5.20)

- 폴 신용기관 국가부채등록원(KRD)은 건설업체 45,621곳의 연체 채무 총액이 1,850백만 즈워티(약 7,637억원)에 달한다고 발표
- 전문건설 분야 부채가 846.2백만 즈워티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으며, 건축공사업체(758백만 즈워티), 토목·수자원 인프라 업체(245백만 즈워티)가 뒤를 이음
- 업계는 원자재·인건비·연료비 상승과 함께 과당경쟁에 따른 '최저가 수주 관행'이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, 일부 기업은 손익 분기점 이하 수준의 입찰가를 제시하며 수주 경쟁 지속
- 건설업 생산은 2026년 3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.4% 증가에 그쳐 시장 회복세는 제한적이며, 업계는 신규 수주 확대보다 현금흐름 및 프로젝트 수익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
- 건설업체들은 현재 고객·발주처로부터 총 393백만 즈워티 규모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며, 대형 업체의 연체가 하도급업체·자재 공급사·장비 대여업체로 전이되며 연쇄 유동성 위기 가능성 제기

○ BGK, 우 기업·지자체 지원 위해 3.4억 유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추진(5.20)

- 폴 국책은행 BGK가 우크라이나 민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총 340백만 유로 규모 금융지원 수단 마련 추진
- BGK는 우크라이나 민간 부문 직접 대출 확대를 위해 약 2억 유로를 배정할

계획이며, 기업 투자·재건 프로젝트 자금조달 지원에 활용 예정

- 지방정부 지원 부문에서는 우크라 은행 대상 1억 유로 규모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해, 지방정부 및 공공기업 투자 프로젝트 대출 시 금융기관 리스크를 분담할 계획
- 또한 전선 인접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40백만 유로 규모 보조금(grant) 프로그램도 마련되며, 일부 사업은 자본비용의 최대 50% 까지 지원 가능
- BGK 측은 우크라 지원 분야 중 ▲프로젝트 파이낸싱 ▲지방 인프라 투자 ▲민간 부문 육성을 핵심 협력 분야로 선정했다고 설명

### ○ 폴란드 태양광 발전, 역대 최대 전력 생산 기록 경신(5.21)

- 폴란드 태양광 발전소가 국가 전력망 역사상 최대 발전량 기록을 경신, 5월 20일 오전 11시 45분 기준 태양광 발전 출력이 14,565MW에 도달
- 당시 폴란드 전체 전력 수요는 19,609MW였으며, PSE는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약 3,400MW 규모 전력 수출도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
- 폴란드 태양광 설비용량은 2026년 3월 기준 약 26.3~26.5GW 수준으로 확대됐으며, 최근 1년간 약 4.2GW 증가
- 2026년 3월 기준 폴란드 전체 발전설비 용량은 77.3GW이며, 이 중 재생 에너지 설비가 약 39.7GW 차지
- 재생에너지 설비 가운데 태양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, 풍력은 약 10.9GW, 바이오매스 999MW, 수력 990MW, 바이오가스 337MW 수준
- 같은 기간 발전원별 비중은 ▲석탄화력 33.9% ▲갈탄화력 17.2% ▲풍력 15.8% ▲가스화력 12.8% 순으로 나타남

### ○ 폴 Ostrów Wielkopolski, 바이오매스 기반 열병합발전 설비 건설 추진(5.21)

- 폴란드 오스트루프 비엘코폴스키(Ostrów Wielkopolski)시가 바이오매스 및 대체연료를 활용하는 열병합발전(CHP) 설비 건설 계획 발표
- 총 사업비는 약 220백만 즈워티 규모이며, 국가 환경보호·수자원관리 기금이 약 151.8백만 즈워티 지원 예정
- 지원 재원은 보조금 5,360만 즈워티와 융자 9,820만 즈워티로 구성

- 신규 CHP 설비의 총 발전용량은 10.5MW이며, 연간 약 22,000톤 규모 폐기물 처리 능력 확보 계획
- 연료는 지역 폐기물 관리시설에서 공급되는 생활폐기물 잔재물 및 바이오매스 중심으로 조달 예정
- 사업은 지역 공공유틸리티 기업 Centrum Rozwoju Komunalnego SA가 추진하며, 2026~2029년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
- 발전소는 약 1.1ha 부지에 건설되며, 폐기물 열처리 설비, 에너지 회수 시스템, 배출가스 정화·배출관리 시스템, 전기·열 공급 인프라 등을 포함

#### ○ PESA, Hitachi·Alstom과 신공항 고속철도 차량 협력 추진(5.25)

- 폴 철도차량 제조기업 PESA는 PKP Intercity 및 CPK 고속철도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해 해외 제조사와 컨소시엄 구성 협상 진행
- 현지 보도에 따르면 PESA는 일본 Hitachi 및 프랑스 Alstom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, 현재로서는 Hitachi와의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
- PKP Intercity와 CPK는 총 최대 115편성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도입을 추진 중이며, 요구 최고속도는 300~320km/h 수준
- 폴란드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300km/h 이상급 차량 생산 경험이 부족해 해외 기술 보유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인 상황
- 경쟁사 Newag은 한국 Hyundai Rotem과 협력을 검토했으나, 최종적으로 독일 Siemens과 협력 계약 체결
- PESA는 단순 조립 생산이 아닌 기술 이전(Technology Transfer)을 최우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, 특히 알루미늄 차체 제작 기술 확보에 집중

#### ○ Eurowind Energy, Kiekrz 태양광발전단지 상업운전 개시(5.25)

- 덴마크 재생에너지 개발기업 Eurowind Energy는 폴 Rokitnica 지역 내 약 60MW 규모 Kiekrz 태양광발전단지의 사용승인 획득 및 상업운전 개시 발표
- 발전단지는 폴란드 EPC 기업 ML System이 시공했으며, 전력망 운영사 Enea의 계통 연계 및 기술검사 절차를 통과
-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 최초 약 44.48MW 규모로 착공됐으나, 이후 약

12MW 추가 증설을 통해 전체 설비 규모가 약 60MW 수준으로 확대

- 사업 운영법인 EW Kiekrz는 발전단지 완공을 통해 폴란드 중서부 지역 전력 공급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Eurowind Energy는 최근 폴란드 재생에너지 개발사 Sabowind로부터 총 370MW 규모 풍력·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는 등 현지 시장 확대 지속 추진

#### ○ 벨기에 Speedwell, 바르샤바 물류개발 부지 인수(5.25)

- 벨기에 부동산 개발기업 Speedwell Development는 폴란드 바르샤바 Targówek 지역 내 물류·산업 개발 부지를 European Logistics Investment로부터 인수
- 해당 부지는 향후 'SpacePlus' 브랜드 기반의 SBU(Small Business Units) 복합 물류·상업시설로 개발될 예정
- S8 고속도로 인접 및 우수한 가시성을 바탕으로 중소형 물류·상업 임차 수요 대응이 가능한 프리미엄 도시형 물류공간 개발 계획
- 회사는 바르샤바를 중동부 유럽 내 가장 안정적이고 성장성이 높은 부동산 시장 중 하나로 평가
- 거래 금액은 비공개이며, 구체적인 개발 일정 및 임대 전략은 2026년 내 추가 발표 예정

#### ○ Aqua, 비엘스코-비아와 하수처리장 현대화 공공지원 협약 체결(5.25)

- 폴 상하수도 기업 Aqua는 비엘스코-비아와 지역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망 현대화를 위해 NFOSiGW으로부터 총 54.6백만 즈위티 규모 지원금을 확보

### 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#### ○ Kernel, 키이우 인근 최대 112.5MW 풍력발전단지 건설 추진(5.13)

- 우 농업 대기업 Kernel 산하 Energy RTB 4가 키이우주 보리스필 지역 야호틴(Yagotyńska) 내 최대 112.5MW 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을 환경영향평가 통합등록부에 제출

- 사업 부지는 약 18헥타르 규모로, 발전단지 가동 시 연간 최대 35만MWh의 친환경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Kernel은 해당 사업 외에도 키로보흐라드 지역의 최대 160MW 규모 'Moldovan 풍력발전단지'와 폴타바 지역의 최대 150MW 규모 'Pishchanska 풍력발전단지' 등 추가 풍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
- Kernel은 2018년 230백만 달러를 투입해 열병합발전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 이후 에너지 사업 확대를 지속 추진 중

#### ○ 우,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 'Energy 10' 올해부터 출범 예정(5.14)

- 우크라이나 정부가 신규 에너지 투자 촉진 프로그램 'Energy 10'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며, 기업들은 최대 23백만 유로 규모 대출을 최대 5년간 연 10%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음
- 대출에는 원금 상환 12개월 유예 조건이 포함되며, 기존 '5-7-9%' 국가 지원 금융 프로그램 내 에너지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
- 신청 접수는 약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, 이후 우선순위 프로젝트를 선별해 지원할 계획
- 우 경제부는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을 위해 6월 1일부터 최대 125백만 유로 한도의 신규 5~10% 대출 프로그램도 추가 도입 예정

#### ○ 우크라, TRACECA 단일 전자 통행허가 체계 참여(5.17)

- 우크라이나는 TRACECA(유럽-코카서스-아시아 운송회랑) 참여국들과 국제 도로화물 운송용 단일 전자 통행허가 시스템 도입 협정 체결
- 협정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TRACECA 정부간위원회 연례 회의에서 체결, 우크라이나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·카자흐스탄·키르기스스탄·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여
- 이번 협정은 참여국 간 국제 화물운송 시 단일 전자문서 기반의 통합 허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으로, 통관 및 운송 절차 간소화 목적
- 제도 시행 시 운송 허가 소요시간 단축, 물류비 절감, 통관·운송 절차 디지털화, 운송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효과 기대

- 협정은 향후 각 참여국의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며, 이후 TRACECA 단일 전자 허가 시스템의 본격 운영 착수 계획

### ○ 우크라, 전후 에너지 시스템 원전 중심 구조로 전환 계획(5.15)

- 우크라 전력망 운영기관 Ukrenergo는 전후(戰後)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원자력 중심 구조로 재편할 계획이라고 발표
- Ukrenergo에 따르면 향후 우크라 전체 전력 수요의 50% 이상을 원자력 발전이 담당하게 될 전망이며, 원전이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축 역할 수행 예정
-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도 병행 추진해, 시나리오에 따라 풍력 2~6GW 및 태양광 약 3GW 신규 설비 구축 계획
- 태양광 확대는 가정·기업 단위 분산형 발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, 에너지 자립성과 전력망 복원력 강화 목적
-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스 기반 조정전원(shunting gas generation) 확보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, Ukrenergo는 북부·동부·남부 지역 중심 신규 발전설비 입찰 추진 예정
- 다만 Ukrenergo는 분산형 전원 확대에도 기존 중앙집중형 송전망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며, 국가 단위 통합 전력망 유지 필요성 강조
- 우크라는 향후 경제 회복 및 전력 인프라 복구를 위해 매년 4~8GW 규모 신규 발전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

### ○ 우 국영은행, 국제보험 연계 첫 ESS 프로젝트 금융 지원(5.19)

- 우 국영은행 Oschadbank가 에너지기업 Elektryka Ukraine의 50MW 규모 에너지저장장치(ESS) 구축 사업에 총 23.6백만 유로 규모 대출 제공
- 해당 프로젝트는 저장용량 131.2MWh 규모 ESS 구축 사업으로, 우크라 송전망 운영기관 Ukrenergo 와 체결한 장기 계약 기반 자동 주파수 복구 예비력(aFRR) 서비스 제공 목적
- 이번 금융지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70%를 조달하는 구조, 국제 보험 Lloyd's 신디케이트를 통한 리스크 보장 체계를 포함한 점이 특징

- Oschadbank는 이번 사례가 자사 최초의 국제보험 연계 에너지 프로젝트 금융 사례이자, 우크라 전사 인프라 사업에서 국제 보험사가 참여한 드문 사례라고 평가
-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이후 전력계통의 유연성 및 신속 대응 가능한 조정 전원 부족 문제가 지속, ESS가 전력망 불균형 완화 및 계통 안정성 확보 수단으로 주목받는 상황
- 현재 우크라이나 내 가동 중인 ESS 설비 규모는 총 500MW 수준이며, 연말까지 약 1,000MW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

### ○ 리비우, 바이오가스·바이오메탄·전력 생산 복합 바이오에너지 단지 추진(5.19)

- 우크라이나 리비우 지역에서 Sokoliv Energy가 바이오가스·바이오메탄·전력 생산을 통합한 바이오에너지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 추진
- 해당 시설은 연간 약 1,370만m<sup>3</sup> 규모 바이오가스, 384만m<sup>3</sup> 규모 바이오메탄, 약 15백만kWh 전력 생산 능력을 목표로 설계
- 원료로는 축산분뇨(소 분뇨), 옥수수 및 밀 사일리지, 곡물 폐기물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, 농업 부산물 기반 순환형 에너지 모델 구축 추진
- Sokoliv Energy는 2025년 12월 리비우에서 설립됐으며, 우크라이나 농업 기업 Gadz-Agro 가 설립 주체로 참여
- 주요 투자자로는 테르노필 지역 농업사업가 Petro Gadz(지분 50%)와 OKKO Group Vitaliy Antonov(지분 47.89%)가 참여 중
- 이번 사업은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산물 활용 확대, 바이오메탄 생산 기반 구축 및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과 연계된 프로젝트로 평가됨

### ○ 폴·우, URC 우크라 재건 협력 위한 정부 간 협정 체결 추진(5.19)

- 오는 6월 25~26일 Ukraine Recovery Conference 2026(URC 2026·우크라 재건회의, 폴란드 그단스크 개최)에서 폴란드·우크라이나 정부 간 재건 협력 협정 체결이 추진 중
- Bartłomiej Babuška 전 폴란드 산업개발청장은 “양국 협력 원칙과 사업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가 필요하다”고 강조
- 폴란드 측은 우크라이나 내 건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이후 사업 취소

또는 기술적 문제 발생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,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필요성 제기

-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구축을 협정 핵심 과제로 논의 중
- 양측은 폴 국경 코르초바(Korczowa)-우크라 크라키베츠(Krakowiec)-리비우(Lviv)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 건설 사업을 대표적 시범 프로젝트로 검토
- 해당 프로젝트는 URC 2026 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추진될 예정이며, 향후 수개월 내 입찰·설계 절차 착수 여부가 결정될 전망
- 폴 주요 건설기업인 Budimex, Polimex, Unibep, Strabag 등은 우크라 재건시장 참여 의지를 적극 표명
- 한편 Kamyshin 우크라 대통령 전략 담당 고문은 양국이 URC 2026에서 '폴란드형 협력 모델(Polish model)'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
- 또한 회의 기간 중 방산 분야 최초 협력 계약 체결도 추진될 예정으로, 재건사업과 방산 협력이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 시사

#### ○ 우크라 5개 도시, EU·EIB 지원으로 사회주택 건설 추진(5.19)

- 5개 지방정부(리비우·지토미르·미콜라이우·크레멘추크·크로피우니츠키)가 EU 지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내 실향민(IDPs) 및 취약 계층 대상 공공주택 건설 추진
- 사업 총규모는 1억 유로이며, 유럽투자은행(EIB)과 유럽연합(EU) 집행 위원회가 공동 지원. 전체 재원의 절반은 무상보조금, 나머지 절반은 10년 거치·30년 만기 장기차관 형태로 제공 예정
- 신규 주택은 각 지방정부 소유 부지 내에 건설되며 민영화·재판매는 금지, 임대료는 시세 대비 크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돼 장기 공공임대로 운영 계획
- 크레멘추크는 1,024세대 규모의 9층 아파트 29개 동 건설 계획을 수립했으며, 미콜라이우는 300세대 규모 10층 아파트 2개 동 건설 추진
- 지토미르는 216세대 규모 대형 공공주택 단지를 건설하고 임대료 독립 조정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, 리비우·크로피우니츠키는 기존 설계 재활용 방식

적용을 통해 건설비 절감 추진

○ 키이우 오피스 시장, 1분기 점진적 회복세 시현(5.21)

- 우크라이나 키이우 오피스 시장이 2026년 1분기 신규 공급 확대와 공실률 하락을 기록하며 점진적 회복 조짐을 나타냄
- 부동산 컨설팅사 Expandia에 따르면 1분기 신규 오피스 공급 면적은 총 11,000m<sup>2</sup>로, 전체 오피스 공급 규모는 연초 대비 0.5% 증가한 212만m<sup>2</sup> 기록
- 신규 공급은 Protasiv Business Center Phase F(7,200m<sup>2</sup>)와 Forum City Garden Business Center Phase 8(4,000m<sup>2</sup>) 프로젝트가 주도
- 1분기 공실률은 18%로 연초 대비 0.5%p 하락했으며, 중소기업 중심 임차 수요 확대와 대규모 신규 공급 부족이 공실 감소 요인으로 작용
- 실제 임대 계약 면적은 46,000m<sup>2</sup>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했으나, 시장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제한적 수준 평가
- 업계는 전쟁 지속과 기업 투자심리 위축 영향으로 연내 키이우 오피스 시장의 급격한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

○ 우크라·일본, 공동 벤처펀드 및 투자허브 구축 추진(5.25)

- 우크라이나와 일본 정부·산업계는 경제·기술 전환 협력 확대를 위해 공동 벤처펀드 조성 및 일본 내 우크라이나 투자허브 구축 추진
- 양국은 우선 지뢰제거(demining)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 기술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 연계를 추진하고, 향후 산업·농업 분야까지 협력 확대 계획
- 일본 측은 우크라이나-일본 합작기업(JV) 투자 확대를 위한 공동 벤처펀드 설립에도 관심 표명
- 우크라이나 내각은 일본 오사카 지역에 우크라이나 투자홍보 허브 설치를 준비 중이며, 이를 통해 일본 기업 대상 투자 유치 활동 강화 계획

○ 우 정부, 총 1.3GW 규모 신규 발전설비 건설 입찰 추진(5.25)

-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력 공급 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총 1,322MW 규모 신규 발전설비 건설권 경쟁입찰 실시 결정
- 대상 지역은 키이우·체르카시주(250MW), 수미·하르키우·폴타바주(872MW),

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주(100MW), 오데사주(100MW) 등 전력 수급 취약 지역 중심으로 구성

- 입찰 참여 사업자에게는 발전설비 준공 후 최대 5년간 kWh당 최대 27.92 유로센트 수준의 발전용량 확보 지원금 제공 예정
- 지원 방식은 전력 피크시간대(아침·저녁) 시장가격이 입찰 확정 발전원가 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 적용
- 신규 발전설비의 최대 준공 기한은 20개월로 설정돼 비교적 단기간 내 전력 공급능력 확충 목표

### ○ 우크라이나, 2026년 바이오메탄 생산량 1.5억m<sup>3</sup> 확대 추진(5.25)

- 우 경제·환경·농업부는 2026년 바이오메탄 생산량을 약 150백만m<sup>3</sup> 수준으로 확대하고, 2030년까지 5억m<sup>3</sup> 생산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발표
- 우크라이나가 농업 폐기물·축산 부산물·짚·사탕무 등을 활용한 바이오메탄 생산에 유리한 자원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는 EU의 친환경 연료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
- 정부는 EU 수출 확대를 바이오메탄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, 2025년 우크라이나 민간 생산업체들이 처음으로 가스수송망(GTS)을 통해 총 1,120만m<sup>3</sup> 규모 바이오메탄을 EU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
- 우 정부는 2026년 4월 '2035년까지 바이오메탄 생산개발 프로그램'을 승인했으며, 향후 10년간 총 21억m<sup>3</sup> 규모 생산능력 확보 목표 제시
- 이번 정책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안보 강화, 농업 부산물 활용 확대 및 EU 친환경 에너지 시장 연계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

## 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### ①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 사업

#### 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0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  
'20. 10월 금융종결  
'25. 8월 발주처, EPC 관련 보증 회수(Bond Call)  
'25. 10월 Orlen, Grupa Azoty에 250백만불 규모 투자안 제안  
'25. 11월 현지SPC,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파산 신청  
'26. 3월 현지SPC-현엔-카인드 구조조정(안) 관련 합의 완료

- (주요동향) '26.3.30 폴란드 법원에 구조조정 및 회생안 제출하였으며,  
'26년 상반기 중 폴란드 법원의 심의 결과 도출 예정

#### 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#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 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  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  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  
'25. 6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 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- (주요동향) 사업 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### ③ 폴란드 바르샤바 모듈러 주택 단지 개발사업

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GS건설, Cordia, KIND
- (사업비) PLN 83.34백만
- (사업내용) 총 전용면적 5,296m<sup>2</sup>, 중형(수평분리) 및 대형주택(수직분리) 36세대 건설
- (추진현황) '25. 2월 GS건설-Cordia 공동개발 논의  
'25. 3월 GS건설, KIND向 사업참여 요청  
'25. 6월 KIND 사전검토위원회 승인  
'25. 9월 GS건설-KIND간 공동개발업무협약의향서 체결  
'25. 12월 투자심의 승인  
'26. 1월 이사회 승인

- (주요동향) '26년 4월 법률자문(현지법인 설립) 시행, 투자계약 체결(KIND→ZEIT)  
'26년 5월 이사회 부의(자회사 설립), SPA 체결(KIND→ZEIT)  
\* 폴란드법 상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제한, 현지법인 설립 또는 인수조치 필요

### ④ 폴란드 카토비체 물류센터 개발사업

#### < 사업 개요 >

- (사업주) LX판토스, KIND, PIS펀드
- (사업비) € 129.7백만 (약 2,075억원)
- (사업내용) 총면적 108,977m<sup>2</sup> 규모 물류센터 5개동(Phase I: DC 1·2동, Phase II: DC 3,4,5동) 건설
- (추진현황) '24. 4월 물류센터 Phase 1 착공(시공사 자체자금으로 진행)  
'25. 9월 물류센터 Phase 1 준공 및 운영 시작  
'25. 11월 LH 사업 철회 및 KIND 사업 검토  
'25. 12월 KIND 투자승인 / Phase 2 건축물 공사 착공  
'26. 1월 금융종결  
'26. 2분기 물류센터 Phase 2 준공 및 운영시작 예정

- (주요동향) '26.4. Phase II 잔여 부지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임차인 협상

## ⑤ 폴란드 루블린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및 통합 관제센터

### < 사업 개요 >

- (주관기관) 이에스이(주), (주)아이티코어스, (주)영국씨애피
- (수원정부) 폴란드 루블린시청
- (사업기간) '26.4.1 ~ '26.12.26.
- (사업예산) 700백만 원
- (사업내용) 스마트시티 개발 전략과 통합 관제센터 구축계획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, 기존 교통관제 고도화 및 실증사업 수행
- (추진현황) '26. 4월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 
'26. 5월 현지조사 수행  
'26. 6월 역량강화연수 및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 
'26. 9월 국내 초청 역량강화연수 예정  
'26.12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- (주요동향)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KIND-루블린시 스마트시티 협력 LoI 체결(4.28.), MoU 체결 예정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</li> <li>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</li> </ul>	KIND LH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</li> <li>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 플랫폼 구축) 국토교통 ODA 추진</li> </ul>
우만 스마트 시티 마스터플랜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</li> </ul>	KIN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'24년 4월)</li> <li>• EDCF 사업화 모니터링 (계속)</li> </ul>
보리스 필 공항 현대화 등 재건 (추진중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</li> </ul>	한국 공항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</li> <li>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</li> <li>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과업착수('24.12), 최종보고('25.12)</li> </ul>
부차시 하수처리 시설재건 (완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</li> </ul>	환경산업 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Pre-F/S 수행결과 최종 평가 완료('26년 1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</li> <li>• 현지상황 모니터링 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</li> </ul>
댐 재건 및 현대화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</li> <li>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</li> </ul>	수자원 공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. 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6년 3분기)</li> </ul>
철도노선 고속화 등 (추진중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 중 4개 구간 타당성 조사 ①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국경(약 375km) ②키이우~빈니차~리비우~국경(약 580km) ③키이우~지토미르~리브네~리비우~국경(약 505km) ④키이우~지토미르~루츠크~리비우~국경(약 525km)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</li> </ul>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12월) 및 착수 보고회 개최('25.3월) * 외교부 ODA 지원사업</li> <li>•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 ('26.12월)</li> </ul>